

필리핀신부의 결혼관과 국제결혼 사례연구*

김정석**

이 연구는 필자가 2007년 하반기부터 1년간 필리핀에 머물면서, 여성들의 국제결혼에 관해 실시한 연구결과와 일부이다. 이미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는 출국준비 중인 필리핀신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면접대상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이용하고, 시집식구들을 의식할 필요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접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출국이전의 상황과 심경을 알아보았다는 점 등은 이 연구가 가진 장점이다. 또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과정을 역추적 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혼, 국내외배우자선택, 특정국적의 배우자선택 과정을 여성 개인의 시각에서 서술토록 한 것도 기존의 연구와 다른 점이다. 연구결과, 필리핀여성의 국제결혼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을 비롯해 다양한 국적의 배우자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그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인 남편은 국제결혼알선업체를 통해 만나는 사례가 다수이지만, 한국에 취업이나 시집을 간 친지를 통해 만나는 경우, 취업이나 휴학을 위해 필리핀에 남편이 방문한 동안 만나는 경우, 온라인 교제사이트를 통해 만나는 경우 등 만남의 경로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만남의 경로에 따라 서로 다른 결혼관과 가족관이 발견된다. 이 연구의 결과들에 비추어, 국제이주노동에서 논의되는 이론들의 일부 요소들이 국제결혼현상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이와 동시에 국가간 방문기회와 인터넷교제기회의 증가라는 전지구화 현상 또한 국제결혼의 또 다른 일면을 파악하는데 주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단어 : 국제결혼관, 현장면접, 송출국, 국제결혼이주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013-B00056). 2009년 전기 인구학대회 발표에서 유익한 논평을 주신 이해경 교수(배재대)와 익명의 인구학회지 논평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연구진행을 도와준 관계기관 여러분과 응답자, 연구보조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 chkim108@dongguk.edu

1. 들어가는 말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국제결혼이민여성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동시에 이들의 국적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으로의 외국인 혼인이주에 관한 연구(김두섭, 2006)에 의하면, 외국인 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주가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통일교도와 결혼한 일본여성들의 이주가 활발하였던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 한국으로의 결혼이주는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농촌남성간의 결혼이 주축을 이루게 된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전에 비해 국제결혼의 규모가 확장될 뿐 아니라 외국인 여성배우자들의 국적 또한 베트남과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지역을 포함하여 다양화되었다.¹⁾ 결혼을 통한 외국인 여성의 유입과 이들 국적의 다양화는 비단 한국사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도 관찰되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Wang & Chang, 2002; Piper & Roces, 2003; Constable, 2005; Lee et al., 2005; Cham, 2006; Kim, 2008).

다른 민족간 결혼의 대규모화는 여러 가지 경제, 사회, 문화, 정치, 가족 영역에서의 파급효과를 가지게 된다. 특히, 한국사회처럼 민족성, 동질성을 강조하고 유지해온 사회에서는 외국인 여성배우자들의 유입은 이들 규모에 대한 통제 여부에서부터 문화적 적응을 위한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이민과 관련된 국내의 학문적 논의들이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 논의들은 대체로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의 결혼과정과 결혼 후의 갈등 및 적응문제를 그 주제로 삼고 있다(강유진, 1999; 윤형숙, 2004; 이혜경, 2005; 김민정 외, 2006; 양순미, 2006). 이들 중 일부 연구는 여성학적 관점에서 성의 상품화와 가정폭력과 같은 국제결혼의 부정적인 결과에 주목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박현정, 2004; 윤정숙·임유경, 2004; 김현미, 2006). 한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들은 실시하고 있다(김애령, 1998;

1) 2007년 혼인신고 집계에 의하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건수는 29,140건에 이른다. 이 중 중국여성이 14,526명(49.8%), 베트남여성이 6,611명(22.7%) 등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캄보디아 여성은 1,804명(6.2%), 일본여성은 1,655명(5.7%), 필리핀여성 1,531명(5.3%), 몽골여성 745명(2.6%)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여전히 중국과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여성이 많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다. 한편, 필리핀여성은 캄보디아나 몽골여성과 함께 최근 들어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통계청, 2007).

민경자, 2003; 이운애, 2004; 설동훈 외, 2005). 또한 기존의 연구 대부분이 소수의 결혼이민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면접조사나 실태조사에 근거한다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통계청의 혼인 및 이혼 전수자료에 근거해 국제결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려는 노력도 있다(김두섭, 2006).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여성들에 대한 이상의 연구들이 국제결혼이주와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이해를 돕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여성들이, 무슨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결혼이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적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결혼이민여성 유입국에서의 상황 뿐 아니라, 송출국에서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들 또한 국제결혼이민여성들을 통해 송출국과 고국에 남은 가족의 상황 및 이주과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있으나, 이미 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획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설동훈 등(2005)이 실시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연구는 그 조사의 방대함이나 치밀함 외에도, 중국현지의 국제결혼중개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송출국의 관점(예. 송출국에서의 현지 신부모집과정, 중개업자 실태, 현지 여성의 한국행 인식 등)을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동훈 등의 연구에서도 송출국의 상황은 중국 조선족 사회에 국한되고, 조사대상자 또한 현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제한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들어 한국으로 결혼이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필리핀을 대상으로 필리핀 자국의 국제결혼현황을 알아보고,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필리핀 여성들의 결혼배경과 결혼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국제결혼과 관련한 필리핀내 기관을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이들 기관의 도움을 얻어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려는 필리핀 신부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하의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몇 몇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얻은 대담내용과 관찰, 그리고 심층면접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한국으로 이입된 국제결혼여성들에 대한 대개의 기존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는 이들이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하기전의 상황과 심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는 곧 이들의 한국이주 이전과 이후를 대비하여 결혼생활의 변화를 관찰해 볼 있는 여지를 남긴다²⁾. 또한, 출국이전 본국에서의 인터뷰는 국

2) 이 연구는 한국으로의 이주 전후를 파악하려는 의도를 애초에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필리핀 신부들과 접촉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현지에서 확보해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수행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이주후의 추후조사(follow up study)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제결혼여성들이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을 의식하지 않는,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기술하겠지만, 현지 연구보조원들이 면접응답자의 언어인 필리핀어로 면접을 진행했다는 점 또한 이들의 심경을 보다 적확하게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과정과 경위를 역추적 하는 방식과는 달리, 결혼, 국내의 배우자선택, 외국인배우자의 국적선택 등을 국제결혼여성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방식은 개별여성들의 기회구조와 선택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접근방식은 기존의 연구들과 함께 국제결혼과 국제결혼여성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2. 현장관찰 및 면접방법

이 연구는 크게 필리핀내 국제결혼 유관기관의 업무자들과의 대담 및 현장관찰, 그리고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신부와의 인터뷰로 이루어져 있다. 필리핀내 국제결혼 유관기관으로는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필리핀재외동포위원회: 이하 CFO)와 이들과 연계하여 Pre-Departure Orientation Seminar (출국전 소양교육프로그램: 이하 PDOS)을 담당하는 기관이 포함된다³⁾. 마닐라지역의 PDOS 담당기관은 교회에 기반을 둔 Center for Overseas Workers (이하 COW)와 사회봉사기관의 성격을 띠는 Philippine Institute for Social Mobilization (이하 PRISM) 2개소이다. 해외이주 필리핀인들은 CFO가 요구하는 PDOS 이수 확인증을 갖추어야 출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게 된다.

연구자는 2008년 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마닐라지역에서 거주하면서 CFO의 위원장과 국제결혼관련 업무담당자, 그리고 이들의 협조를 얻어 마닐라지역의 PDOS 담당기관의 기관장과 업무담당자를 대담할 수 있었다. 이들과의 주요 대담내용은 필리핀국제결혼의 현황과 추이, 그리고 PDOS에 참여하는 국제결혼여성들에 대한 인상 등이었다⁴⁾. CFO, COW, PRISM의 기관장 혹은 업무담당

3) 대통령직속산하기구인 CFO는 취업이나 결혼 등을 목적으로 외국으로 장기이주하는 필리핀인들의 출국전 등록(Pre-departure Registration) 등을 담당하는 정부기구로 마닐라에 본청과 세부에 지청을 두고 있다. 이들 CFO는 결혼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필리핀인들에 대한 PDOS를 민간기구(마닐라 2개 기관, 세부 1개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다.

4) 이들 기관은 각자 한 달에 2번, 이틀간 PDOS를 열고 있었으며, 그 날짜가 기관 사이에 겹쳐있었다. 연구자는 이 두 기관에서 개최한 PDOS에 기관을 번갈아 참여하였으며,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가족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질의를 받기도 하였다.

자들과의 대담은 연구자가 영어로 진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간략한 노트로 작성하였다. 한 차례에 걸친 대담이라기보다는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문이 들거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대담을 나누는 형태를 취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친 대담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이들 기관장과 업무담당자들이 진솔하게 대담에 응해주기는 하였으나, 친밀감을 형성한 후에 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들의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불편한 상황이었다. 또한 제한적인 지식(국제결혼에 대한 필리핀 국내외의 문헌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출국을 앞둔 필리핀여성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시도한 연구사례가 적기 때문에)만을 가지고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구가 진행되면서 발견되는 의문이나 확인사항이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면접대상이 된 특정 필리핀신부의 각 사례에 대한 이들의 판단과 의견을 참고하여야 할 경우들도 적지 않았다.

COW와 PRISM의 PDOS에 참여하는 필리핀신부들과의 심층면접은 대체로 연구보조원이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면접과정에서의 의사소통문제를 들 수 있다. 필리핀에서는 영어가 공용어이기는 하지만, 거리에서는 Tagalog어 등을 비롯해 자신들의 국어를 사용한다. 필리핀신부, 특히 비영어권으로 출국하는 신부들의 상당수가 영어에 능통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영어구사능력이 뛰어난 일부 여성들의 경우에도 미묘한 감정과 상황을 영어보다는 자신들의 국어로 표현하기를 원하였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결혼배경, 과정, 결혼 후 계획을 비롯하여, 결혼전 이성교제 등 개인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남성인 연구자보다는 친숙하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현지의 동성 면접자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한편, 한국남성과 국제결혼을 한 신부들은 한국에서 온 연구자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어느 정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불법화되어 있는 국제결혼중개인을 통해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는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는 실정이었다⁵⁾.

연구보조원들은 마닐라 퀘존시에 위치한 필리핀국립대학에서 학사 혹은 석사 학위를 취득한 여성들로 영어와 Tagalog어에 능통할 뿐 아니라 질적, 양적 조사 방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였다. 연구자는 심층면접이 시작되기 몇 개월 전부터 이들과 심층면접의 목적, 방향, 내용 등을 심도하게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이 연구에서 전달하는 현장관찰 및 심층면접과 연계해서 진행되었던 국제결혼 필리핀여성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

5) 이와 함께 필리핀신부들은 소양교육을 담당하는 COW와 PRISM의 협조를 통해 소개된 연구자가 자신들의 서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문에 연구전반에 대한 연구보조원들의 사전지식이 충분히 확보되었다⁶⁾.

심층면접 대상자는 한국으로의 출국을 위해 PDOS에 참가하는 필리핀신부들 중에서 심층면접에 동의하는 여성들로 국한되었는데, 이들을 확보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상당수의 여성들이 처음 만나는 연구진들에게 사생활의 깊은 이면을 말해주리라 기대하기는 힘들다. 특히, 면접자와 면접대상자 간 레포(rapport)를 형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주제의 민감성은 대상자 확보에 어려움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⁷⁾.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어려움은 연구진에 대한 이들의 경계심이라고 판단된다. 이들은 연구진이 CFO라는 필리핀정부기관과 연계되어 필리핀에서는 불법인 국제중개결혼여성사례를 파악하고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 생각한 듯하다. 필리핀신부들이 가진 이러한 두려움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면접을 허용했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면접을 취소하거나 면접당일에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⁸⁾.

면접은 가능한 한 응답자가 편하게 느끼는 장소와 지역에서 실시하였는데, 응답자의 가정보다는 커피숍이나 식당이 많았다. 연구자는 면접자에게 영어로 면접내용과 지침을 제시하는 한편, 영어로 결과를 보고받았다. 한편, 면접자와 면접응답자간에는 주로 타갈로그어를 썼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세부아노(세부 지역의 필리핀어)를 쓰기도 하였다. 면접결과는 응답자의 양해 하에 녹취를 하였으나, 상당수의 응답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녹취상태가 좋지 못해 녹취록을 부분적으로 만든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면접자가 작성한 응답노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한편, Tagalog어로 된 녹취물은 영어로 번역되었다.

이 연구에서 보고하는 사례들은 면접경험이 풍부한 현지연구보조원 A가 면접

6) 연구자는 심층면접 이외에도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로 출국하는 필리핀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7) 면접응답자 확보가 어려웠던 또 다른 요인은 면접대상자들의 빠른 출국계획 및 일정이었다. PDOS에 참가하는 여성들 일부는 아주 먼 지역에서 CFO 행정서류와 한국행 결혼비자를 획득하기 위해 잠시 마닐라에 온 상황이었다. 또한 이들 여성 대부분은 CFO에서 발급하는 서류(PDOS 확인증명서 포함)가 갖추어지면 곧 바로 한국영사관에서 한국비자를 신청하며, 비자가 발급되자마자 곧 한국으로 들어가는 바쁜 일정을 가지고 있었다. 빠른 경우는 PDOS 참가후 2주 혹은 2주 반만에 출국하는 여성들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이 출국하기 전에 바쁜 틈을 내어 면접에 응해줄 수 있는 여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8) 연구자가 수개월에 걸쳐 PRISM과 COW를 방문하는 동안, 건물 밖에서 필리핀신부들을 수송하는 차량과 이들을 기다리는 현지인들을 꾸준히 관찰하게 되었다. 특히 PRISM의 경우는 출입구 앞이 보도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길거리에서 필리핀신부들을 기다리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얼핏 보기에 이들은 친인척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상 중개업자와 연관된 사람들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여성 중 7사례이다. 이들 사례들은 필리핀신부들이 남편과 만나는 과정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PDOS에 참여한 대다수의 여성이 국제결혼알선업체를 통해 남편을 만난 점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사례 선택은 통계적인 대표성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필리핀신부들이 국제결혼알선업체 이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한국인 남편을 만날 수 있으며, 이로써 이들의 결혼배경과 결혼관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기에 이상의 사례들로도 어느 정도 충분할 것이라 생각된다⁹⁾.

3. 필리핀국제결혼추이와 현황: CFO 자료와 관련자 면담

필리핀에서 여성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매우 제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Ogena, Valencia & Roma, 2008)¹⁰⁾. 또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간헐적으로 신문매체에 보도되는 비극적 사건에 국한된 정도로 보인다. 필리핀 여성들의 국제결혼은 이미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온 사회현상이다. 여기에는 필리핀국내, 특히 도시지역 결혼연령층의 성불균형, 7,000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에서 활성화된 국내 및 국제 이동, 그리고 이를 통해 강화된 이주멘탈리티(migration mentality), 척박한 삶에서 벗어나거나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여성들의 결혼이동(mobility marriage)욕구, 섹스관광과 함께 등장한 국제결혼알선사업 등장 등과 같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깔려 있다(Cahill, 1990). 이 외에도 외국과 외국인에 대하여 개방적인 사회적 풍토 또한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필리핀은 휴양지와 유흥지가 발달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있다. 다음의 <표 1>은 1981년부터 2007년까지 국제결혼 혹은 약혼자(미국의 경우)를 만나기 위해 출국한 필리핀 여성들의 수를 배우자국적별로 보여주고 있다.

9) 심층면접은 연구보조원 A, 25사례, 연구보조원 B, 20사례로 총 45사례에 이른다. 그러나 면접의 질과 내용면에서 상당수의 사례는 분석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전체 사례에 대한 면접노트와 녹취록 풀이가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 따라서 전체 사례에 대한 분석은 시간이 더 요구된다는 현실적인 문제 또한 일부 사례에 국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임을 밝혀둔다.

10) 국제결혼한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호주, 일본, 스위스에 시집간 여성들을 비교 분석한 Cahill(1990)을 손꼽을 수 있겠다.

<표 1> 필리핀 CFO가 발표한 국제결혼 건수: 1981년~2007년

연도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독일	뉴질랜드	이태리	영국	스페인	한국	기타	전체	연증가율
1981	40,307	5,226	254	2,752	45	12	4	88	8	14	157	48,867	
1982	44,438	4,898	310	2,931	263	25	8	682	35	7	356	53,953	10.41%
1983	34,794	3,946	140	2,608	282	41	11	346	18	2	293	42,481	-21.26%
1984	34,682	2,463	137	2,915	346	55	19	364	57	6	507	41,551	-2.19%
1985	38,653	2,097	126	3,458	213	52	10	276	34	6	344	45,269	8.95%
1986	40,650	3,206	53	4,374	88	37	4	658	11		257	49,338	8.99%
1987	40,813	5,757	6	8,983	58	45	9	436	28		215	56,350	14.21%
1988	41,378	6,602	62	9,319	83	11	32	256	56	1	220	58,020	2.96%
1989	39,524	8,040	1,271	5,943	135	55	109	248	120	4	296	55,745	-3.92%
1990	43,781	8,400	3,569	5,847	334	50	160	291	94	4	619	63,149	13.28%
1991	43,824	7,211	3,946	5,715	522	91	130	286	57	14	668	62,464	-1.08%
1992	46,691	7,454	4,048	4,104	593	128	105	205	77	14	735	64,154	2.71%
1993	44,903	11,627	4,527	3,083	780	237	123	159	108	25	818	66,390	3.49%
1994	40,515	14,302	4,225	3,224	784	287	99	174	86	18	817	64,531	-2.80%
1995	34,614	11,288	4,883	2,966	661	579	71	151	68	31	930	56,242	-12.84%
1996	41,312	10,050	4,510	2,002	542	1,005	72	150	40	237	993	60,913	8.31%
1997	37,002	8,215	4,171	2,124	566	405	50	195	25	277	1,029	54,059	-11.25%
1998	24,886	5,651	3,810	2,189	560	253	96	193	39	256	1,076	39,009	-27.84%
1999	24,123	6,712	4,219	2,597	550	186	125	225	345	422	1,003	40,507	3.84%
2000	31,324	8,245	6,468	2,298	552	261	371	174	336	110	892	51,031	25.98%
2001	31,287	9,737	6,021	1,965	507	284	823	176	411	62	781	52,054	2.00%
2002	36,557	8,795	5,734	2,603	518	624	982	271	451	55	1,130	57,720	10.88%
2003	33,916	9,521	5,929	2,223	445	382	662	225	586	77	1,171	55,137	-4.48%
2004	42,350	10,108	5,993	2,647	393	131	859	309	579	289	1,266	64,924	17.75%
2005	40,280	13,598	7,062	3,027	367	394	1,250	478	685	480	1,407	69,028	6.32%
2006	49,522	13,230	9,742	3,735	457	1,973	954	556	898	281	1,619	82,967	20.19%
2007	46,420	14,572	8,806	3,467	424	1,639	1,490	654	933	576	1,618	80,599	-2.85%
합계	1,048,546	220,951	100,022	99,099	11,068	9,242	8,628	8,226	6,185	3,268	21,217	1,536,452	
비율	68.2%	14.4%	6.5%	6.5%	0.7%	0.6%	0.6%	0.5%	0.4%	0.2%	1.4%	100.0%	

자료: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CFO)

CFO가 제공한 이 표는 CFO의 출국전등록(Pre Departure Registration: 이하 PDR)과정을 이수하고 출국한 여성들의 숫자를 집계한 것으로, PDR 없이 출국한 여성들의 수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이미 취업이나 학업 혹은 친지 방문 등의 이유로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국제결혼을 한 여성은 포함되

지 않는다. 2007년도에 한국에 신고된 필리핀여성과의 국제결혼건수는 1,531건이지만, CFO에서 제시한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여성은 576건이다. 이상과 같은 차이는 CFO 직원과의 면담과정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는 국제결혼을 통해 출국하는 필리핀여성의 추이를 목적국가별로 보여주고 있다.

필리핀여성의 국제결혼이 1981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상대 국가는 미국이다. 필리핀여성이 결혼하는 미국남성에는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주1세대와 이주2세대 등(Fil-Am)도 적지 않다고 보고된다. 캐나다는 미국 다음으로 필리핀여성의 국제결혼이 많은 곳이다. 호주의 경우, 필리핀여성의 국제결혼이 꾸준히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일본에 비해 그 수가 월등히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남성과의 국제결혼은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연 8,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국제결혼 다수가 미주나 유럽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이나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이 두드러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배우자의 국적별로 필리핀여성들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기 위해, CFO가 PDR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일부 제공받았다. 이 자료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타이완, 한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10개국으로 결혼을 위해 출국한 여성의 개인정보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와 연도별로 20사례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총1,000사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10개국*5개연도*20사례). 다음의 <표 2>는 배우자의 국적별로 국제결혼필리핀여성들의 몇 가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필리핀여성들의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일본, 대만 및 한국인과 결혼하는 여성들이 다른 국가의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들에 비해 그 연령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맞물려서 일본, 대만, 한국인과 결혼하는 여성들에게서 이전에 결혼한 경험이 없는 비율 또한 높음을 알 수 있다. 대학교육을 받은 필리핀여성의 비율 또한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일본, 대만,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에게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일본에서는 그 비율이 상당 수준 낮다. 남편들의 평균연령에서는 일본이 높지만, 대만과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물론, CFO에서 일부 자료를 선택해서 제공한 것이지만, 이로써 일본, 대만, 한국인과 결혼하는 여성이 미국, 캐나다인과 결혼하는 여성에 비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이들은 젊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이전에 결혼경험이 없는 여성이 다수이다.

<표 2> 배우자 국적별 필리핀여성과 배우자 특성, 2002년~2006년

배우자국적	여성평균연령	남성평균연령	대학졸업 %	Never Married %
미 국	32.9	44.3	67.1	84.2
캐나다	32.0	39.2	78.2	83.6
호 주	30.1	44.9	66.3	79.8
일 본	27.7	43.4	33.0	91.8
대 만	28.9	33.6	59.0	97.0
한 국	27.2	37.6	50.0	97.6
영 국	29.9	45.2	61.2	81.6
독 일	30.2	45.5	47.8	82.6
노르웨이	29.2	43.2	49.5	86.3
스위스	29.8	41.6	56.2	78.7
합 계	29.6	41.9	55.7	86.5

자료: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CFO)

이러한 현상에 대해 CFO와 PDR 프로그램관계자들은 흥미로운 점을 지적한다. 이들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대체로 미국인과 결혼하는 여성들은 일본이나 한국인과 결혼하는 여성에 비해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 따라서 영어구사능력도 높기 때문에 남편과의 의사소통문제가 적다. 또한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배우자를 만날 기회와 가능성도 훨씬 높다. 이에 덧붙여서 CFO와 PDR 관계자들은 미국인과 결혼하는 여성들이 매우 오만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치 자신들이 미국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까다롭게 구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한국인과 결혼하는 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편이며, 영어구사능력도 떨어지지만 젊은 여성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이는 다시 남편들 또한 영어를 잘 못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매체로서의 영어구사능력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다만 젊은 (혹은 어린) 여성들이 많은 것은 일본이나 한국남성들이 결혼경험(특히 성적 경험)이 없는 여성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라 해석하고 있다.

국제결혼사례에 대해서 CFO와 PDR관계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필리핀에서의 어려움 보다는 새로운 기회와 삶을 찾으려는 이상향(Dreamland)에 무게를 두고 찾으려는 사례이다. 여기에는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 또한 포함된다. 둘째, 필리핀에서의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곳을 벗어나려는데 더 무게를 두는 사례이다. 두 가지 사례 모두 필리핀을 떠난다는 일치점을 보이고 최종적인 자기결정이 수반되지만, 그 과정과 기대하는 바는 다르게 나타난다.

4. 한국인과 결혼하는 여성의 심층면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하는 필리핀여성 7사례를 선택해 이들의 결혼배경과 결혼관을 분석하고 있다. 선택된 사례들을 남편과 만나는 과정을 통해 분류해보면 중개인의 소개로 만난 4사례와 중개인 없이 직접 만난 3사례로 나뉜다. 중개인은 친지, 국제결혼알선업체 등이 포함된다. 한편, 중개인 없이 직접 만난 사례는 여행이나 업무로 필리핀에 온 남편과 만나는 경우와 인터넷 교제사이트에서 만난 경우가 포함된다. 사례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었으며, 정보보호를 위해 상세한 사항은 생략하기로 한다.

Case 1: 한국인과 결혼한 친구의 소개, 남편에 대한 선택

Case 1은 현재 30세로 37세의 음향기사 남편과 결혼하였다. 남편은 이혼남으로 딸을 하나 두고 있으며 대학을 마치지 못했다. 남편은 한국인과 결혼하고등학교 동창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Case 1은 대학에서 원주민장학프로그램(소수 원주민을 위한 정부장학프로그램) 혜택을 받아 생물학을 전공한 후 치대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상 포기하였다.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시고, 아버지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Case 1은 9남매 중 셋째이며, 큰 오빠가 한국에서 취업중이다. 어린 세 동생은 아직 중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들의 학비를 위해 자신의 학업을 포기하고 취업하게 되었다. 지금은 해외취업필리핀인들을 모집하는 업체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신도 쿠웨이트, 레바논에서 가정부로, 대만에서 공장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다.

Case 1은 지금보다 어린 나이에 친구의 결혼실패를 목격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외로워지고 결혼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외국취업 중에 현지 남성과 교제한 적이 있었지만 심각한 관계는 아니었고, 현재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배우자감을 찾아보기도 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찾는 배우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을 가지고 있었다(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키가 크고, 피부가 검지 않으며, 가족배경이 훌륭한). 현재 남편을 만나기 이전에 한국인과 결혼한 친구의 소개로 이미 두 번에 걸쳐 한국남성을 소개받았으나, 외모와 요건(몸이 불편한 여동생과 함께 살아야 한다) 등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 거절하였다. 그녀로서는 반드시 사랑해서

결혼하기 보다는 결혼하고 나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과 남편이 1년간에 걸쳐 인터넷과 전화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편안함을 느꼈으며, 마침내 대면했을 때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

한국에 취업중인 오빠는 한국인과의 결혼에 대해 한국에서 결혼으로 고통 받는 필리핀여성들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부모는 남편의 국적과 관계 없이 그녀가 마침내 결혼을 했다는 사실로 만족한다고 한다. 이는 필리핀에서도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관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하고픈 바를 많이 포기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시댁과의 관계를 매우 염려하고 있다. 이는 COW의 PDOS에서 며느리-시댁 간에 갈등과 충돌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괴된 사례를 장시간에 걸쳐 소개함으로써 비롯된 바가 크다고 보인다. Case 1은 결혼생활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으며, 그럴 경우 필리핀으로 돌아올 예정이라 밝힌다.

많은 여성들이 한국에 온 후 취업을 원하지만, Case 1은 취업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전업주부가 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든 딸이든 한 명의 자녀를 두기 원하고 있으며, 자녀에게는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 한다. 본국의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도움 없이도 부모님은 생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믿음을 보였다. 다행히 남편이 매달 송금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 그럴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아직 남편과는 의논하지 못했지만, 노후는 필리핀에서 보내고 싶어 했다.

Case 1은 나이가 들면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자신의 뜻이 분명히 느껴지고, 자신이 가진 배우자상에 적합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는 사례라 볼 수 있다. 남편의 국적에 대해 특별한 선호는 없지만, 적어도 필리핀 남편은 피하고자 하였다. 이는 자신의 기대사항, 특히 경제적 안정성에 근접하는 필리핀 남성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인과 결혼하게 된 것에는 가까운 친구가 한국인을 소개해주었다는 점 이외에도 그 친구가 같은 나라에 있다는 점 또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덜어주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는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교제한 미국인과의 결혼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발견된다.

Case 1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례에서 간혹 발견되는 흥미로운 점은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과의 결혼이 갖는 장점중의 하나는 그 자녀들이 매우 예쁘다는 응답이다. 필리핀에서는 피부색이 사회적 지위를 뜻하는 동시에 외모상의 매력을 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Hall, 2001). 실제 Case 1은 자신의 피

부가 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현재의 남편을 대면했을 때 부끄러웠다는 말을 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Cahill(1990)의 설문조사에서도 외국인과의 결혼이 주는 장점 중의 하나로 이 같은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것을 의아하게 여겨 이러한 점이 국제결혼의 매력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CFO와 PDOS 업무 담당자, 현지연구보조원에게 질문했는데, 매우 개연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

Case 1은 혼인연령에 이르렀거나 이를 넘긴 필리핀여성이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기대치, 특히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해 줄 있는 필리핀남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후, 외국인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찾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굳이 결혼중개업체의 소개를 통하지 않고서도 한국인과 결혼한 친구를 통한 개인적인 연결망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교제사이트를 이용한 점 등은 이러한 적극적 과정을 보여준다. 한편, 친구가 소개해 준 한국인 남성들에 대해서도 외모나 결혼 후 생활조건 등을 따져보고 거절하는 모습들은 국제결혼여성들이 배우자선택에 있어 어느 정도 자율성을 행사하는 면을 보여준다. 자율성과 적극성을 보이는 이러한 결혼양상은 결혼생활에 대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전망을 동반한 것으로 나타난다.

면접일시 및 장소: 2008년 4월 28일 오후 1:30-2:30 6:30-8:30, 마닐라 로빈슨백화점내 커피숍

Case 2: 개인적인 연결망을 통한 기회, 한국방문중 시부모의 주선

Case 2는 현재 27세이며, 북민나다오 섬 출신이다. 중등학교 3학년 때 집안형편 때문에 학교를 잠시 쉬고,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게 되었다¹¹⁾. 그러나 충분한 벌이가 되지 않자, 학교를 포기하고 대도시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었다(현지인들에 따르면, 돈벌이를 위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종종 고향에 돌아갈 면목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에 머물게 된다고 한다). 마닐라와 근교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세계평화가족연합(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에 소속한 먼 친척을 만나면서 해당 기관의 전일제 지원자가 되었다¹²⁾. Case 2의 아버지는 농부, 어머니는 조그만 가게(sari sari)를 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가게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집안출신이다. 부모는 각각 이전의

11) 필리핀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중등학교(high school) 4년-대학으로 구성된다(외교통상부, 2005).

12) 응답자에 따르면 이 기관은 통일교의 한 기관이며, 성경공부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다양한 기독교 종파의 회원들이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 외에도, 둘 사이에서 태어난 5명의 자녀가 있다. Case 2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중 장녀이다.

Case 2의 남편은 현재 38세로 식당의 주방장으로 일하다가 지방 중소도시에 위치한 회사로 일자리를 옮겼다. 그녀가 한국에 오면, 2008년 2월에 시어머니를 잃고 홀로 된 시아버지와 함께 생활할 예정이다. 그녀가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는 좀 색다르다. 그녀에게는 세계평화가족연합을 통해 한국인남편과 결혼해 한국에 살고 있는 사촌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가 출산을 하면서 육아도우미로 2007년 가을 한국에 초청되었다. Case 2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사촌언니의 시어머니를 통해 남편의 부모님을 먼저 만나게 되었으며, 이들의 소개로 남편을 대면하게 된다. Case 2는 남편의 외모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끼지 못했으나, 시부모가 자신에게 보여준 관심과 호의가 결혼을 결정하게 된 계기라고 밝히고 있다. 결혼당사자보다 부모들의 의견을 더 중시해서 결혼이 성사되는 현상은 민다나오 섬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교도간에는 흔한 일이라고 한다. Case 2가 민다나오 섬 출신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소개 및 결혼과정이 낯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Case 2에게 결혼은 정신적, 정서적, 재정적인 책임을 동반하는 심각한 사건이다. 그녀는 항상 외국인과의 결혼을 원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어 보인다. 우선, 필리핀의 많은 여성들처럼, 필리핀남성들의 경제적 부양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Case 2는 자신의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에 좋은 필리핀남편을 만나지 못하겠지만, 외국인과의 결혼에서는 이 자체가 큰 흠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들어 있다. 또한 외국인과의 결혼이 물질적인 풍요(특히 본국 가족에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는 외국인과의 결혼이 성행하고 있는데, 스위스에 시집간 딸을 둔 이웃집이 그 딸의 덕으로 새 집을 지을 수 있었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 이 외에도 Case 2가 미국인(백인)과의 결혼을 원한 데에는 키가 크고, 눈이 파란 자녀를 두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Case 2는 외국인과의 결혼을 생각해왔다고 하더라도, 한국인과의 결혼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녀가 받은 인상은 백인남편들이 본국의 아내가족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데 있어 더욱 관대하다는 것이다. 실제 그녀가 현재 거주하는 마을에는 스위스, 미국, 유럽, 한국 등 다양한 국가로 여성들이 시집을 갔는데, 한국으로 시집간 집에서 받는 도움이 가장 적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한국인들은 인색하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한다. 그녀가 한국으로 시집간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마을사람들이 굳이 한국일 필요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Case 2는 한국 방문 시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떠한지 어느 정도 느낌을 갖고 있는 상태이다. 집안이 가난하기는 하지만, 남편으로부터의 도움을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 가족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혹은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불구하고, Case 2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시부모가 상당히 호의적이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사실 면접에서 Case 2는 남편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또한 한국 방문 시 남편을 어느 정도 관찰할 기회가 있었고,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Case 2는 한국으로 시집간 사촌언니의 부모와 이웃집의 시부모가 축이 되어 남편과 만나게 된 경우로 이러한 과정의 중간에 있는 사촌언니는 중개보다는 교량역할을 한 셈이다. 아마도 나이 든 아들을 둔 현재의 시부모는 이웃에 시집온 필리핀신부(필리핀에서 대학을 마치고, 한국에서 영어교사로 활동 중)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마침 방문한 Case 2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는 남편의 부모가 결혼연령을 넘긴 아들을 장가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이며, Case 2의 입장에서는 국제결혼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비록 자신이 특별히 원했던 국적의 남편은 아니지만 결혼을 한 경우라 볼 수 있다.

면접일시 및 장소: 2008년 6월 15일 오후 1:30-4:00, 까뻬메지역 백화점내 커피숍

Case 3: 어머니의 적극적 노력, 국제결혼의 물질적 혜택

Case 3은 현재 18세로 마닐라 인근 까뻬메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녀가 태어나기 전 가족들은 마닐라의 부랑자촌(squatter area)에 살기도 하였다. 중등학교를 마친 그녀는 총 9남매 중 6째로,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해 만난 43세의 한국인과 결혼하였다.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며, 4-5남매(Case 3은 남편의 형제자매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중 막내로 결혼 후 시어머니와 함께 살 예정이다. Case 3의 아버지는 부두노동자로 일하였으나 암에 걸려 1년전부터 일을 그만 두었다. 약간의 연금을 받기는 하지만 오랜 동안의 의료비와 약값으로 소진된 상태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이다. 31세가 된 오빠가 있으나,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빠듯한 형편이고, 11세인 막내는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 상황에서 Case 3의 형제자매들은

직장을 찾아야 했으며, 받은 급여는 가족들의 생계유지에 쓰이고 있었다.

중등학교를 졸업한 Case 3은 어려운 집안형편과 학비문제로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지난 2년간 유흥업소(KTV)의 접대부로 일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그녀는 일본인, 한국인, 대만인 세 명의 남자친구를 차례로 만나게 되었다. 최근에는 필리핀인 남자친구를 사귀기도 했으나 그와의 미래가 없을 것으로 보여 관계를 청산했다. Case 3은 이미 16세 때 일본인 혹은 대만인과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한다. 한국인과의 결혼은 원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한국인은 쉽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처럼 어린 나이에 외국인과의 결혼을 심각하게 원했다는 점은 Case 3에게는 결혼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 안정성을 찾아줄 것이며, 외국인남편은 재정적인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는 그녀의 믿음을 보여준다. 접대부로 일하면서 차례로 사귀었던 세 명의 외국인 남자친구는 자신의 선택지를 탐색하는 과정이었을 수 있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Case 3에게 낯설지 않다. 비록 성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웃의 소개로 그녀의 언니가 한국인과 결혼할 뻔하였다. Case 3의 어머니는 이웃들의 질시(자신이 이웃들보다 더 잘 살게 될 가능성 때문에)로 언니의 결혼성사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이후로 보다 적극적으로 딸들의 국제결혼을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부의 어머니는 중개알선업체의 신부 모집책에 자신의 딸들을 부탁하게 된다. 한편, Case 3은 자신이 사는 마을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이미 외국인과 결혼을 하였으며, 이로부터 물질적인 혜택을 많이 받고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국제결혼을 수용하고 이에 대해 개방적인 마을 분위기는 Case 3의 어머니가 딸의 배우자로 외국인을 공개적으로 찾는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Case 3이 소개받은 한국인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언니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은 이제까지 그녀가 기다려 온 행운(good luck she has been waiting for)이라고 같이 기뻐해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녀의 가족들이 국제결혼은 하늘이 보내준 대단한 기회라고 진실로 생각하는 모습을 확인시켜 준다.

Case 3이 남편을 만나는 과정은 상업적인 결혼중개업체의 모드를 따르는 전형이다. 예비 신부모집책은 여성들을 모집한 후, 특정 장소에 데려간다. 여기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이 볼 수 있도록 줄 지워 진열된 후(show-up), 남성들의 선택을 기다리게 된다. 선택이 마무리 되면 곧장 결혼식, 신혼여행, 필리핀 현지에서의 결혼수속을 며칠 내에 마무리한다. 이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여성들이 없지 않으나, Case 3은 이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그녀로서는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보다 나은 삶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Case 3은 그녀 스스로가 남편을 만나는 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피하지만 상업적 중개업체를 통한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유추는 면접자의 조심스런 질문과 면접과정에서 얻은 파편적인 정보를 엮어보면 가능하다). 그녀의 사례는 국제결혼이 제공할 수 있는 물질적 혜택이 결혼을 추진하는 주요 원인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자신보다는 그 어머니가 오래 전부터 딸들의 신랑감으로 외국인들을 물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아버지의 장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훨씬 이전이다. 아버지의 발병과 장애는 국제결혼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압박을 더 한 것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제일차적 원인이라 보기는 힘들다.

면접일시 및 장소: 2008년 6월 3일 오후 1:00-2:45, 까삐떼 지역 응답자 거주지 근처

Case 4: 남겨놓은 자녀와 연인, 한국에서의 취업

Case 4는 23세로 마닐라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루손섬 중부에서 태어나 자랐다. 현재 부모는 8년째 별거중이며 아버지로부터 소식은 없다. 어머니는 주문 음식 배달업에 종사하며, 결혼한 오빠는 삼촌의 운수사업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다. 이들의 가정형편은 마을에서는 뒤쳐지지 않는 편이다. 그녀는 대학을 마치지 못했는데, 19세에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출산을 하였기 때문이다. 동거남은 자립심이 없을 뿐 아니라 외도를 일삼아 관계를 정리하고, 지금은 그 사이에서 얻은 아들을 키우고 있다¹³⁾. 이후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새 남자친구를 만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인과 결혼하고 5년 후에는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와 남자친구, 아들과 함께 가족을 꾸릴 계획이다.

Case 4의 한국인 남편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났다. 남편은 36세 미혼이며, 대학졸업자로 서울에서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녀에 의하면, 남편은 다른 커플의 남편과는 달리 개방적이고, 잠자리를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중할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과정에서 어머니 또한 일정

13) 연구자가 PDOS에서 면접한 여성의 일부는 이미 전 남자친구 혹은 동거남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두고 있었다. 한국에 관한 질의와 응답시간에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인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연구자가 매우 곤혹스러워 한 일도 있었다. 또한 결혼알선업체가 뒤늦게 자녀를 둔 사실을 알고, 곤궁에 처한 여성도 면접에서 발견되었는데 알선업체에서는 남편에게 이를 숨기도록 협박을 했다고 한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인과의 결혼에 관심이 없는지, 혹은 관심이 있다면 삼촌에게 지원서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삼촌에게 제출한 지원서는 몇 단계를 거쳐 한국인 예비신랑에게 전달되었고, 만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상태에서 결혼식 및 결혼신고까지 치렀다.

Case 4는 이전에 일본인과의 국제결혼도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 왜 일본인이냐는 질문에 대해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했고(실제 마을에서 일본인과 결혼한 사례가 1건 있음), 이것이 추세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중개업체 측에서 일본인들은 술집에서 일할 수 있는 여성을 모집하기 때문에 자신은 우선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인과의 결혼은 결혼알선업체와 연줄이 닿아 있는 자신의 삼촌을 통한 것이었다. 현재의 필리핀 남자친구에게도 자신의 국제결혼을 알려놓은 상태지만, 둘이 헤어질 생각은 없다. 오히려 남자친구는 5년 후에 Case 4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Case 4에게 알선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상호간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찾아서 짝지기 되는 유일한 경로이며, 사랑 없이 서로간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결혼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그녀는 자신의 배우자가 누구든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녀는 애정이 전제되지 않은 결혼을 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시댁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5년 동안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5년 동안의 결혼기간은 Case 4가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동시에, 취업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라 설정하고 있다. 이후에는 필리핀으로 돌아가 자신의 아들과 현재의 남자친구와 함께 살아갈 계획이므로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할 것이라는 뜻은 비추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인 남편을 사랑하게 되어 한국에 정착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Case 4는 결혼과 가족생활의 중요한 토대가 사랑이라고 믿고 있다. 그럼에도 사랑이 결여된 결혼에 뛰어들 이유는 필리핀보다는 외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 사례는 필리핀신부가 필리핀에 있는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해외취업을 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국제결혼을 택한 경우라 볼 수 있다.

Case 5: 필리핀에서의 만남, 임신, 결혼

Case 5는 19세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27세의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은 이들이 만날 당시 업무 차 마닐라에 여행을 왔다가, 직장을 찾게 되어 머무는 상황이었다. 여느 10대 소녀들처럼 Case 5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데, 현재의 한국인 남편도 친구들과 함께 있던 빠(술집)에서 알게 되었다. 몇 번의 데이트를 하고, 만난 지 2개월이 지난 후 남편의 권유에 따라 남편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애초에 두 사람은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았으나 그녀의 임신 소식을 접하고 남편이 청혼을 했다고 한다.

Case 5는 간호대학을 일 년 다니다가 어머니를 돕기 위해 학업을 그만 두었다. 간호대학은 부모의 권유였는데, 해외취업의 기회가 많은 직종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전문직으로서의 해외취업은 보통의 필리핀가족들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바라고 한다. 학교를 그만둔 후, Case 5는 여러 차례 이직을 하게 되는데, 필리핀의 취업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잦은 이직은 많은 사례에서 발견된다. Case 5는 외국에 나가 본 경험은 없지만,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일해보기를 원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기회가 오더라도 외국생활의 두려움으로 인해, 마지막 순간에는 물러섰다고 한다. Case 5의 가족사를 살펴보면, 부모를 비롯해 형제자매들이 일찍 결혼하는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는 20세, 어머니는 대학교 1학년때(19세) 서로 만나 가정을 꾸렸으며, 6남매를 두었다. Case 5는 이 중 셋째이고, 22세인 큰 오빠는 이미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쌍둥이 언니 또한 17세에 동거를 시작해 두 명의 자녀가 있다.

Case 5는 16세 때 필리핀 남자친구를 사귀어 동거할 뻔 했으나, 어머니의 반대로 다행히도 무산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도 없는 필리핀 남자친구와 결혼해 가난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음을 다행이라 여긴다고 한다. 이전에는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결혼은 필리핀 사람끼리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체구가 왜소한 자신에게 덩치가 큰 외국인은 두려운 존재라고 한다. 또한 외국인 남편에 의해 토막 살해된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더더욱 외국인과의 결혼은 생각지 못했다고 한다¹⁴⁾.

국제결혼이라고 해도, Case 5는 결혼생활의 적응, 생활양식의 변화와 직면할 어려움 등의 측면에서 필리핀인과의 결혼과는 차이가 많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

14) 토막난 신부(Chop-Chop lady)는 외국인 남편에게 신체적으로 학대당하고 마침내 살해당한 필리핀여성들을 의미한다. 종종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내용들로, 이에 관한 내용은 Saroca(2007)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 그녀에 의하면, 자신의 남편이 부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원은 있다고 한다. 이들 부부는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서로에게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보인다. Case 5는 국제결혼알선업체를 통한 한국인과의 결혼에 대해 남편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한국인 남편들의 다수가 농촌에 살며 그 삶이 적박하다고 알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결혼알선업체를 통해 결혼하는 필리핀여성들에 대한 동정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분노로 이어지기도 한다. 분노는 두 가지 면으로 향하는데, 하나는 필리핀여성들이 한국인과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훨씬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바보스런 믿음’을 갖는 것, 또 하나는 이들은 사랑이 아니라 필요, 특히 재정적인 문제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Case 5는 아직 나이가 어려 결혼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여성이 임신 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되는 사례이다. 여기에서 한국인 남편은 여자친구의 임신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배우자의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어 청혼을 하였다(결혼할 여성의 부모와 가족들에 대한 예의는 필리핀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이야기는 매우 통상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Case 5는 사랑을 위해 결혼을 함에 있어, 국제결혼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가령, 남편이 자신의 가족을 도울 것이라는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한국인과 필리핀여성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코피노)이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면접일시 및 장소: 2008년 4월 16일 오후 3:00-6:00, 마닐라인근지역

Case 6: 직장에서의 만남과 연애

Case 6은 23세로 바기오 시(市)의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바기오에서 농장 일을 하였고, 어머니는 까삐떼(Cavite)의 자유무역지구에서 재봉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와 형제자매들은 나중에 어머니와 합류하기 위해 까삐떼로 이주하였다. Case 6은 5남매 중 중간으로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Cavite 지역의 한국인 소유기업에서 비서 겸 스태프로 일을 하다가 2007년 학업을 마치기 위해 바기오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바기오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영어교습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어와 한국에 관한 지식을 얻었다고 한다.

한국인 남편을 알게 된 것은 그녀가 의류회사의 개인비서로 근무할 당시 남편이 제조부서 관리자로 일하게 되면서부터이다. 남편이 자연스럽게 그녀를 집에 바래다

주고, 그녀의 부모를 만나면서부터 둘의 만남은 잦아졌고, 이후 두 달 만에 남편이 청혼하기에 이르렀다. 까삐떼 지역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고 난 두 달 후, 바기오의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석 달 후 다시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녀에 의하면, 남편이 부임해 올 당시,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헤어지고 난 두 달 후 남편이 데이트를 신청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이미 서로에 대한 호감이 많았다고 한다. 남편은 현재 33세로 대학을 졸업했으며, 필리핀에 와서 일을 하다가 보다 좋은 직장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간 상황이다. 남편은 주말을 이용해 자신과 가족들을 방문하고 있다. 두 사람이 정상적인 교제를 통해 결혼에 이르렀기 때문에 Case 6은 남편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가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게 된 것은 남편에게 강한 사랑을 느끼고 있으며,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Case 6은 자신의 가족들이 이전 남자친구에 비해 한국인 남편을 훨씬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남편이 자신의 가족과 이웃들을 예의바르게 대하기 때문이다. 결혼 후 자녀는 한 명 혹은 두 명 정도 둘 계획이며, 자신이 한국에서 영어교사가 될 수 있도록 남편이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음에 감사한다.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자신이 영어를 가르친 한국인 학생들로부터 들어 온 이야기에 비추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알선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려는 한국남성들은 대다수가 농부이며, 이들의 삶은 척박하다. 한편, Case 6은 한국여성들이 너무 물질적이어서 한국인남성들이 외국인 배우자를 찾기도 한다고 보고 있다. 알선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는 필리핀여성들에 대해서는 돈을 목적으로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필리핀신부를 소개해달라는 남편친구의 요청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이러한 알선업체로 비취지기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된다.

면접일시 및 장소: 2008년 6월 16일 오전 11:00-12:45, 까삐떼

Case 7: 인터넷 교제사이트에서의 만남

Case 7은 29세로 현재 부모와 함께 까삐떼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아버지는 소작농 겸 농장관리인으로,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지만 때때로 농장에서 일하기도 한다. 그녀의 형제 중 막내를 제외한 오빠 2명과 남동생 2명 모두, 자유무역지구에서 일하고 있다. 중등학교를 졸업한 후 가게에서 일하거나 판매원 등으로 일하다

가 대학에 응시한 후 무난히 합격하였다. 집안이 어려워 대학을 염두에 둘 수 없었으나, 정부학비보조금을 지원받아 무사히 졸업하였다. 그녀의 집안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자녀는 그녀가 유일하다. 그녀 스스로 인정하듯이 집안이 너무 가난했는데, 이 때문에 가족을 돕기 위해 대학이라는 높은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봉급을 가족에게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녀에게 결혼은 평생에 걸친 매우 심각한 헌신을 의미한다. 결혼이란 장밋빛 카펫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 서로 잘 아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부부는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부부는 노력한 대가로 안락함을 얻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Case 7은 외국인과의 결혼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녀로서는 필리핀남자들이 보다 정감 있기(affectionate) 때문에 필리핀남자와의 결혼이 나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인과의 결혼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전에 한국인 직장상사로부터 매우 나쁜 인상(항상 고함지르고, 화를 내는)을 받았기 때문이라 한다.

Case 7은 현재의 남편을 Friendster이라는 온라인 교제사이트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¹⁵⁾. 이 사이트는 필리핀여성들에게 매우 유명한 곳으로 온라인교제를 주목적으로 하지만, 많은 경우 국제결혼을 염두에 둔 여성들이 접근하기도 한다. Case 7이 올려놓은 프로필을 보고, 남편이 친구가 되자며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다. 이렇게 교제가 시작되어, 결혼하기 전까지 3개월 동안 5 차례에 걸쳐 남편이 필리핀을 방문하였다. 남편과 대면하기 전에 인터넷상에서 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남편은 현재 40세로 이혼한 경험이 있는 전기공이며, 10세, 13세의 두 자녀가 있다고 한다. Case 7은 필리핀에서의 결혼식장에서 이 두 자녀를 만났으며, 좋아한다고 한다.

Case 7은 온라인상에서 만나 실제 결혼을 하게 되는 사이버 로맨스의 일례이다. 매우 가난한 형편에서의 국제결혼이지만, 자신과 가족들의 경제적 혜택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적어도 결혼과 남편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신실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남편이 약속한 대로 때때로 필리핀의 가족들을 위해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가능성을 부인하기도 힘들다. 온라인상에서의 교제는 Case 7 외에도 소수이지만 몇 사례에서 발견되었다. 인터넷상에서 서로에게 영어로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어느 정도의 영어구사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양자 모두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을 갖춘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라 보여 진다.

면접일시 및 장소: 2008년 6월 13일 오후 1:00-4:00. 까뻬뻬

15) 이에 대해서는 Angeles & Sunanta(2007)을 참조하기 바란다.

6. 맺음말을 대신하여

이 연구는 연구자가 필리핀에서 체류하는 일 년 동안 진행한 연구의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가 추구했던 연구의 전반적인 목적은 필리핀여성들이 한국을 비롯해 외국인남성과 결혼하게 되는 과정과 배경, 그리고 그것이 개인들에게 갖는 함의 등을 설문조사, 현장관찰 및 심층면접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현지에서 수집된 자료가 입력중인 과정에 있고,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사항이어서, 어느 정도 보고(report)가치가 있는 부분만을 먼저 발췌해 정리해 보았다.

필리핀의 CFO 자료와 국제결혼관련기구 등을 방문해 담당자들과 대담해 본 결과, 한국은 주요 목적국 중의 하나임이 분명해졌고, 목적국에 따라 필리핀여성들의 특성들 또한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들어 한국 또한 필리핀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많이 이주해가는 국가로 부상하였지만, 여전히 다수의 여성들은 영어권 국가로 많이 이주해가고 있다. 이들은 일본이나 대만 혹은 한국으로 이주하는 여성들과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다. 한편, 일본, 대만, 한국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은 미혼의 비율이 높고, 여성의 평균연령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과 결혼해 이주하는 필리핀여성들의 면담 내용은 이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그리기보다는 다양성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들의 유형은 남편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에 따라 구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 연구에서도 상업적인 국제결혼알선기관을 통해 많은 이들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취업이나 결혼을 통해 들어온 필리핀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 필리핀에 업무, 휴가, 어학연수, 유학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한국인이 많아짐으로써 현지에서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 인터넷 교제사이트가 활성화됨으로써 이를 통해 결혼에 이를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은 다양해진 결혼경로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로와 함께 국제결혼의 목적과 동기가 단순히 본국에서의 궁핍으로부터의 탈출 혹은 외국에서 향상된 경제적 여건이라는 것으로만 모아져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분명 국제결혼을 하는 여성들이 표면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이러한 목적과 동기를 가질 수 있겠으나, 동시에 이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한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심층면접의 결과는 국제이주노동과 관련된 여러 이론들을 상기시킨다¹⁶⁾. 물론 국제이주노동과 국제이주결혼을 동일한 현상으로 접근한

16) 국제이주노동에 관한 이론들은 설동훈 (2000), Massey et al. (1998)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는 것은 무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이주노동의 주요 이론들이 국제이주결혼의 모습을 읽어내는 데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수의 여성들이 본국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제결혼에 이른다는 점은 국제이주노동에 관한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의 ‘배출-흡인 요인(push-pull factor)’의 설명과 흡사하다. 만성적인 가난과 실업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필리핀여성들을 국제결혼(이와 함께 해외취업)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상대적 박탈이론에서 논하는 상대적 빈곤 또한 필리핀여성들의 국제결혼에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부 여성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대도시에서의 삶 그리고 외국인과 결혼한 이웃 여성들의 삶을 보고 상대적 빈곤감을 느낀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해지면서 그 지역사회에서는 국제결혼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성공적인 사례가 늘어나면서 많은 지역민들이 이에 동참하게 된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박탈감으로 시작 혹은 강화된 국제결혼은 누적원인이론의 논의와 같이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변화시키게 된다.

국제결혼이 시작되고 지속되는 면을 배출-흡인요인 이론, 상대적 박탈이론 및 누적원인이론 등이 어느 정도 설명한다고 봤을 때, 여전히 많은 국가들 중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조직결성이론과 사회연결망이론이 유용할 수 있다. 조직결성이론은 한국남성과 필리핀여성을 잇는 국제결혼알선업체의 형성과 역할에 초점을 두으로써 대규모 국제결혼에 대한 설명력을 제공한다. 한편, 사회연결망이론은 이미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인(취업이나 결혼 등)들이 본국의 여성들과 한국의 남성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수행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결망은 한국남성들에 대한 소개, 필리핀여성들이 국제결혼에 대해 갖는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국제이주결혼이 국제이주노동의 모습을 닮은 점이 많기는 하나, 이로써 필리핀여성들의 국제결혼을 포괄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점도 있다. 연애결혼의 경우, 이상에서 언급한 국제이주노동 관점들의 유용성은 많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는 전지구화(globalization) 과정에서 남녀간의 교제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으로 접근가능하다. 가령, 취업, 어학연수, 휴양 등의 목적으로 필리핀으로 가는 한국인의 증가,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세계 각지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증가 등은 국제결혼의 새로운 일면을 구축할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이 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면접의 녹취록이 완성되고, 또 한편으로는 설문조사의 자료입력이 완성되면, 필리핀여성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식이 획득되리라 본다. 글을 맺기 전에 본 연구가 보다 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을 추적해서 이들의 정착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물론 현지에서 면접한 모든 여성을 다 조사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미 결혼에 실패해서 필리핀으로 귀국했거나 귀국하려는 여성들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추적조사를 위해서는 필리핀의 CFO 당국, 그리고 국내 유관기관의 협조와 배려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유진 (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김두섭 (2006) “한국인 국제결혼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 분,” 《한국인구학》 29(1): 25-56.
- 김민정 · 유명기 · 이해경 · 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애령 (1998) 《충남 거주 조선족여성의 결혼과정과 적응에 관한 연구》 충남도청.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 11-37.
- 민경자 (2003) 《충남 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박현정 (2004)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 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 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광주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pp. 1~34.
- 설동훈 (2000)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 설동훈 · 김운태 · 김현미 · 윤홍식 · 이해경 · 임경택 · 정기선 · 주영수 · 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미래인력연구원, 보건복지부 용역연구 보고서.
-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 중심” 《농촌사회》 16(2): 151-179.
- 윤정숙 · 임유경 (2004) “성별화된 이주 방식으로의 국제결혼과 여성에 대한 폭력: 필리핀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윤형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김성국·정근식·유명기 (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321-349.
- 이윤애 (2004) 《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정착지원 방안》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통계청 (2007), 2007년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 Angeles, Leonora and Sirijit Sunanta. (2007) “Exotic Love at Your Fingertips: Intermarriage Websites, Gendered Representation, and Transnational Migration of Filipino and Thai Women” *Kasarinlan: Philippine Journal of Third World Studies*22(1):3-31.
- Cahill, Desmond (1990) *Intermarriage in International Contexts: A Study of Filipina Women Married to Australian Japanese and Swiss Men* : U. P. Population Inc.
- Cham, Nguyen Thi Phuong “Cross-Border Marriage of Vietnamese Women in Wanwei (Jiangping, Dongxing, Guangxi, China) and the Development in Border Area”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n Asia: Critical Issues for a Sustainable Future, Phuket, Thailand; 20 -22 March 2006
- Constable, Nicole (ed) (2005) *Cross-Border Marriages: Gender and Mobility in Transnational Asia*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Hall, Ronald E. (2001) *Filipina Eurogamy* Quezon City, Philippines : Giraffe Books.
- Kim, Doo-Sub (ed) (2008) *Cross-Border Marriages: Process and Dynamics*. Institute of Population and Aging Research (IPAR): Hanyang University.
- Lee, Yean-Ju, Dong-Hun Seol and Sung-Nam Cho (2005) “Increasing International Marriages in Korea: Immigration Laws and Social Positions of Southeast Asian Wives” presented at the SEASREP 10th anniversary conference in Chiang Mai, Thailand, Dec 8-9, 2005.
- Massey, Douglas S., Joaquin Arango, Graeme Hugo, Ali Kouaouci, Adela Pellegrino & J. Edward Taylor. (1998) *Worlds in Motio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Ogena Nimfa B., Valencia Minda Cabilao and Roma Golda Myra R. (2008) “Filipina Marriage Migration Streams to Japan, Taiwan and South

Korea" Kim,D.S. (ed) *Cross-Border Marriages: Process and Dynamics*.
Institute of Population and Aging Research (IPAR): Hanyang
University.

Piper, Nicola and Mina Roces (eds) (2003)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Oxford : Rowman & Littlefield

Saroca, Cleonicki. (2007) "Representing Rosalina and Annabel: Filipino
Women, Violence, Media Representation, and Contested Realities"
*Kasarinlan: Philippine Journal of Third World Studies*22(1):32-60.

Wang, Hong-zen, and Shu-ming Chang (2002) "The Commodific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s: Cross-border Marriage Business in Taiwan and
Viet Nam" *International Migration* 40(6): 93-116.

[2009. 3. 23 접수 | 2009. 7. 21 채택]